사계절 일년 다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힘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우천시 9홀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 2009 스포츠 '희망을 쏜다' <1> 금호고 출신 축구스타 기성용

"월드컵 본선행 내가 이끈다"

16세에 청소년 대표로 발탁
A매치 6경기서 2득점 기록
올 '한국 축구 키워드' 기대

'약관(弱冠)'의 기성용, 대한민국 축구 새로운 역사를 쓴다.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10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B조 최종예선. 월드컵 본선 진출과 자존심을 놓고 접전이 벌어진 이날 한국은 후반 19분 북한에 선취골을 내주며 0-1로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5분 뒤 귀중한 승점 1점을 예약하는 극적인 골이 터졌다. 대표팀의 막내이자 당시 유일한 10대 선수였던 기성용(FC 서울)의 오른발에서 탄생한 동점슛이었다. 이 골은 기성용의 A매치 데뷔골이기도 하다.

위기의 대표팀을 구한 한국 축구의 새 희망 기성용은 1989년 광주에서 태어난 20세의 젊은 선수다. 순천중앙초등학교 6학년 때 차범근 축구대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재능을 과시한 기성용은 축구인 2세이자 호주 유학파이기도 하다.

금호고 축구팀을 이끌며 천재적 감각의 미드필더 윤정환과 고종수를 키워냈던 기영옥 전 감독(현 광양제철고 교사)이 기성용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축구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기성용은 광양제철중 1학년 때 호주로 축구 유학을 떠나 축구 스타 탄생을 위한 밑거름을 다졌다.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16세에 청소년 대표팀을 시작으로 2007년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표를 두루 거친 후 지난 가을에는 허정무 감독의 부름을 받아 9월5일 요르단과의 평가전에 전격 출격했다. 한국 축구 역사상 16번째 하이틴 A매치 데뷔(19세 225일)였다.

그리고 A매치 두 번째 출전이었던 북한과의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천금같은 동점슛을 쏘아올린 기성용은 그 기세를 몰아 10월11일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시원한 선제골을 기록하며 2경기 연속골에 성공했다. A매치 6경기에서 2득점을 올리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피로 자리매김을 한 기성용은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축구대표팀 국내파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제주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다.

187㎝의 장신으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기성용은 롱패스가 일품이다. 넓은 시야로 미드필드 좌우에서 정교하게 쏘아올리는 장거리 패스와 탁월한 공배급 덕에 '택배'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강력한 슈팅과 역동적인 플레이 그리고 극적인 승부사 기질을 가진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미드필더 제라드를 빼닮아 '기라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급부상하며 2008년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던 기성용에게 기축년 2009년은 더욱 분주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팀이 시즌 리그 2위를 하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챔피언스 리그에 나서게 됐고, 당장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과의 경기가 2월11일 예정돼 있다. 9월에는 청소년(U-20)월드컵을 위해 이집트를 찾아야 한다. 2008년 못 다 이룬 팀의 K리그 우승도 기성용에게는 중요한 목표다.

기축년 한국 축구의 '키워드' 기성용은 팀 우승과 국가의 영예를 위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오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필

◇생년월일=1989년 1월24일(광주 출생)
◇출신교=순천중앙초-광양제철중-존폴컬리지(호주)-금호고
◇키·몸무게=187㎝,79kg
◇소속팀=FC 서울
◇포지션=미드필더
◇프로 통산기록=49경기 출전 4골 2도움
◇A매치 출전기록=6경기 출전 2골

"챔스리그 결승무대 꼭 밟고 싶다"

맨유 박지성 새해 포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거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2008-2009시즌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무대를 꼭 밟고 싶다는 새해 소망을 밝혔다.

박지성은 1일(한국시간) 맨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인터뷰에서 "(우리)팀이 다시 한 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물론 이번에는 경기에도 나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2008시즌 '박지성 선발 출전=승리' 공식을 만들어냈던 박지성은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까지 네 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뛰고도 정작 첼시와 결승전에는 출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그는 이어 2008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미들즈브러전 1-0 승리에 대해 "득점 기회가 많았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나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승리했다는 게 기쁠 뿐"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2009년을 맞는 희망과 포부도 전했다.

그는 "2009년에는 나와 클럽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새해에 펼쳐질 모든 경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월에 열릴 인테르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 역시 마찬가지다. 인테르 밀란은 지난 2년간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올 시즌에도 무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뒤 이번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대회 2연패 주역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곁들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팀 동료의 훈련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다. 호날두는 대단한 속임수 동작을 보여주고, 긱스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역시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엄청난 경험이 있으니 언제나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스콜스 역시 훈련을 지켜보는 게 즐거운 선수 중 하나다. 그는 공을 정말 편안하게 다루며, 뛰어난 시야를 갖고 있어 놀라운 패스를 보여준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갖고 있으니 2009년 동안 모든 대회에서 우승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전 돌입

시·도협회장 선출 완료
조중연·허승표·강성종씨
오늘 공식 출마 선언

16개 시·도축구협회장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강원도축구협회가 지난달 30일 총회에서 권은동 회장을 선출하면서 16개 시·도협회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들 시·도협회장은 오는 22일 제51대 회장을 뽑는 대한축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한표씩을 행사한다.

축구협회장 선거권을 지닌 대의원 2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시·도협회장이 사실상 차기 회장을 결정짓는 셈이다.

나머지 대의원 12명은 축구협회 산하 7개 연맹 회장과 협회가 지명하는 중앙 대의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에 뜻을 둔 조중연(62) 축구협회 부회장과 허승표(62) 한국축구연구소 이사장, 민주당 국회의원인 강성종(47) 경기도축구협회장 등은 1월2일께 일제히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득표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중연 후보측은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내년 초 축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자신의 약력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했던 허승표 후보측도 "새해 시작과 함께 축구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종 후보측도 "두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는 대로 입후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말레이시아 오픈 참가

'윙크 보이' 이용대(21·삼성전기)가 기축년(己丑年) 새해 첫날을 보신각 타종으로 맞은 뒤 곧바로 해외 원정에 나섰다.

김중수 감독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1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09말레이시아오픈배드민턴 슈퍼시리즈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다.

이용대는 출국에 앞서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2009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새해를 새로운 기분으로 맞았다. 타종을 마친 뒤 곧바로 태릉선수촌으로 돌아와 잠을 청한 이용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려야 했다.

스포츠 스타 중 유일하게 타종 행사에 참석한 이용대는 "날씨가 너무 추워 고생했지만 타종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밝힌 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돼 무척 기쁘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NEW YEA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쌍화점 (18세) 최고급관
2관	지구가멈추는날 (12세)
3관	벼랑위의 포뇨(전체)/지구가 멈추는날(12세)
4관	볼트(전체)
5관	과속 스캔들 (12세)
6관	달콤한 거짓말 (12세)
7관	예스맨 (15세)
8관	트와일라잇 (12세)
9관	쌍화점 (18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2관	로맨틱 아일랜드(15세)/트와일라잇(18세)
3관	지구가멈추는날 (12세)
4관	벼랑위의 포뇨(자막)(전체)/달콤한 거짓말(12세)
5관	예스맨 (15세)
6관	러브인클라우즈 (15세)
7관	잃어버린세계를찾아서(전체)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한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상무점·하남점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벼랑위의 포뇨(더빙)(전체)/지구가멈추는날(12세)
2관	벼랑위의 포뇨(자막)(더빙)(전체)/로맨틱아일랜드(15세)
3관	지구가멈추는날(12세)
4관	잃어버린세계를찾아서(전체)
5관	미안하다 독도야 (전체)/예스맨(15세)
6관	볼트(더빙)(전체)/오스트레일리아(12세)
7관	과속 스캔들(12세)/쌍화점 (18세)
8관	쌍화점 (18세)
9관	과속 스캔들 (12세)
10관	쌍화점 (18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신학 • www.cinua.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지구가멈추는날(12세)/오스트레일리아(12세)
2관	볼트(자막)(전체)/지구가멈추는날(12세)
3관	쌍화점 (18세)
4관	잃어버린세계를찾아서(전체)/예스맨(15세)
5관	벼랑위의 포뇨(자막)(전체)/달콤한 거짓말(12세)
6관	과속 스캔들 (12세)
7관	쌍화점 (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극차 시무나(오전5시~오후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미안하다 독도야 (전체)
2관	쌍화점 (18세)
3관	벼랑위의 포뇨(더빙)(전체)/트와일라잇(12세)
4관	지구가멈추는날(12세)/예스맨(15세)
5관	쌍화점 (18세)
6관	로맨틱 아일랜드(15세)/오스트레일리아(12세)
7관	쌍화점 (18세)
8관	과속 스캔들 (12세)
9관	잃어버린세계를찾아서(전체)
10관	지구가멈추는날 (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새롭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쌍화점 (18세)
2관	지구가멈추는날 (12세)
3관	달콤한 거짓말 (12세)
4관	과속 스캔들 (12세)
5관	잃어버린세계를찾아서(전체)
6관	벼랑위의 포뇨(전체)/예스맨(15세)

* 무료주차 3시간
(충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